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769>

JCCT 2023-5-91

세계화의 문화 확산과 반세계화에 따른 기술혁신 성장연구

Growth of Globalization Cultural Sprea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tudy with Anti-Globalization

서 대 성

Seo, Dae-Sung*

요약 세계화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 각국이 소통하고, 세계화들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려면, 창의력이나 기획력이 코딩화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제시하고 방증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연결성에 따라 높아진다. 이러한 연결성이 문화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 변화는 문화적 확산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각 지역에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와 반세계화가 문화적 확산과 혁신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미국 중상층의 소득을 비교해 다루고 있다. 세계화는 K-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교류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국제여행 등을 통해 세계화는 한국의 혁신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 활동, 기술 혁신, 창조적인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화는 새로운 기술과 접근법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경제 모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중상층 모델로 K-문화수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문화 산업에서의 세계화는 지역적인 특성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성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중상층의 문화적인 단일화와 소외(단절)를 가져와 도태될 수 있다. 미국 중상층소득에 대한 K-수출의 실증분석결과, 반세계화에도 문화적 확산과 혁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변화로 한류의 소프트파워가치는 주요 수출국의 중상층에 대한 사용가치를 만들 수 있음을 방증한 연구이다.

주요어 : 세계화, 문화확산, 반세계화, 첨단혁신, 소프트파워 가치, 사용가치

Abstract Globalization has brought about rapid econom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changes. In order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mmunicate, recognize and understand globalization, creativity or planning ability can be used to cod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esent and prove a data analysis that can solve world problems. In the global market,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increases with connectivity. This connection is becoming one of the factors that increase the value of culture. Changes taking this into account promoted cultural spread and innovative growth, and increased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n each region of the world. This paper compares the income of the middle clas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anti-globalization on cultural spread and innovative growth. Globalization has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elements of K-culture can interact and spread.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international travel, globalization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s innovative growth. In areas such as economic activit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eative industries, globalization has facilitated new tech and approaches, Through this, it changed the existing economic model and contributed to exports K-culture with a new middle class model. However, globalization in the cultural industry can result in the los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 individuality, which can lead to the middle class cultural unification and alienation(chasm).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K-exports for the middle income in the United States, cultural diffusion and innovation must be developed even in anti-globalization. With these industrial changes the soft power value of the Korean Wave proves that it can create value for use for the middle class of major exporting countries.

Key words : Globalization, Cultural diffuse, Anti-globalization, Advanced innovation, Soft-power value, Use-value

*정회원,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3년 3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8일

Received: March 31, 2023 / Revised: April 17, 2023
Accepted: May 8, 2023
*Corresponding Author: jangyoume@hanmail.net
Dept. of Design, Inje Univ, Korea

I. 서론

디지털 글로벌화로 인해, 명품 브랜드와 K-POP은 서로 다른 산업이지만 비선형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와 K-문화는 일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결국 문화적인 다양성과 진정한 창조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화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기반을 둔 경제 시스템을 촉진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또한, 세계화는 문화적 동일성을 증진하고, 지배적인 문화들이 더욱 선호되게 만들어, 다른 문화들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K-문화의 급속한 성장 역시 일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K-POP과 K-Drama 등의 인기 문화 콘텐츠는 대중들에게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또한, K-문화 산업은 대부분의 수익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이는 다른 국가에서의 불균형한 소비 패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화와 K-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는 명품 브랜드는 높은 가격 때문에 소수의 고객만 이용할 수 있었고, K-POP은 언어 장벽이나 오프라인 존재감이 제한되어 접근성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산업 모두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와 K-POP은 상호 간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는 K-POP 스타들과 광고, 뮤직 비디오, 이벤트 등에서 협업하여 K-POP의 인기와 젊은 팬층을 고려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Louis Vuitton, Gucci, Dior, Prada, Zegna, Valentino 등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BTS와 BLACKPINK 같은 K-POP 그룹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의 브랜드와 K-POP 스타들 간의 협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탈리아 어린이들은 K-POP 음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K-POP 그룹의 팬들은 이제 패션 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Gucci는 EXO의 카이와 Prada는 BTS의 진과 같은 K-POP 스타들과 더 많은 계약을 맺고 있다. 브랜드 인기를 원치 않는 브랜드들조차도 Balenciaga는 Suga와 Givenchy는 V와 디올은 지민과 같은 BTS 멤버들과 협상하고 있다. 이러한 메가 브랜드들은 K-POP 음악의 글로벌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한국에서의 명품 브랜드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연예인들 사이에서 명품 브랜드의 인기 때문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증대와 함께 증가한 판매, 그리고 K-POP 스타들이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명품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은 (발렌티노의 피에르파올로 피치올리) K-POP 스타들과 함께 패션 협업을 하고 있다.

세계화와 K-문화의 융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션 브랜드들이 K-POP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디지털경우도 많다. 이러한 협력은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신규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으로 인해 K-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K-문화는 국제 이주와 관련하여도 변화를 주었다.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 증가와 함께 K-POP과 같은 한류 문화가 세계 각지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K-POP 콘서트, 팬미팅 등의 행사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 한식 레스토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K-문화의 해외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융합의 황금도시는 한국이다. 한국은 점차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명품 브랜드는 이미 K-POP 스타들을 대표로 삼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융합이 세계화되어, 각광받는 이유는 100% 창의적인 팝 요소인 K-POP이, 더 이상 법적으로도 더 완벽할 수 없을 만큼, K-invasion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중문화는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분단된 동아시아의 이 나라는, 60년 대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최고의 문명 중 하나로 꼽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연결돼서, 농어촌 나라에서 미래 지향적인 융합국가로 변화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남미까지 잠재적인 바이어가 될 팬들에 의해 다시 한 번 글로벌화되는 공유 비디오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K-세계화 변화가 지속시킬 대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한다.

II. 반세계화와 세계화 연구

1. 세계화의 선행연구 : 테마별 개방과 하드파워

지난 몇 년 동안, 선행 대부분 연구 중 국제 관광, 세계화 및 기술 혁신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G-10 국가의 생태 발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가 있다. 관광, 세계화로 경제 성장이 생태 발자국에 크게 기여한 반면, 기술 혁신은 환경 부담을 줄여 샘플 국가의 생태 발자국의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 산업에서 대체 에너지 자원과 첨단 기술의 사용을 시사한다 [1].

반세계화는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문화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화는 전 세계의 문화를 융합시키고, 지구화를 촉진하는 반면, 반세계화는 지역과 국가별로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반세계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계화로 인해 생긴 문화적 융합이 제한되거나, 전 세계적인 문화 교류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화적으로 단절된 지역들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세계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세계화와 반세계화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서 공존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지구화를 추구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며, 지역적 특성을 중시하는 반세계화도 세계적인 문화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반세계화가 문화적 단절을 초래하는 것은 이론적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계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다.

프랑스 학자(Pierre Hassner 교수 포함)들은 우크라이나 충돌의 원인을 서양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유럽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상 지금도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안보체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지해 왔다.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의 붕괴로 인해 1989년에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의 종말에 대해, 당시 소련은 미국이 주도한 비밀 협정을 했다. 미-소의 동부와 베를린 사이의 계약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끝나게 된 이유는 미국과 베를린 동부가 3번이나 NATO를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NATO에 가입하면서 그 약속은 깨졌고, NATO는 동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푸틴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지만 NATO의 확장은 계속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에도 새로운 NATO 가입을 추진했다. NATO의 시각에서는 냉전 시대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했지만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프랑수아학자들은 나토의 확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에 대한 일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한다.

나토의 확장은 미국과 서유럽의 소프트파워 보다는 하드파워가 우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토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는 나토의 확장이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고, 주변 국가들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긴장을 촉발시키는 반세계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반세계화의 연구: 중산층 하락

세계화 조건에서 선행연구는 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조건은 국가 공간의 거시 경제적 안정성, 경쟁력 및 내부 및 외부 환경 효율성을 포함시켰다. 이는 가치/독창성 전략은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환경 국가와의 자유 무역 지대 개발에 따라 수출입 전략과 적절한 대외 경제 활동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2]. 그러나, COVID-19 대유행의 글로벌 영향과 세계 경제에 대한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중국이 제일 큰 상품 생산국이라는 점과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의 Foxconn 공장 종업원들이 간혀있는 봉쇄도 있었다. 팬데믹은 글로벌화 시스템의 중요한 결함을 드러내며 세계 경제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냉전 시대 이후 자본 수요가 변화한 것과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대세가 된 것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2011년 월스트리트 시위와 그 시위 참가자들이 세계가 중산층에 의해 더 이상 지배되지 않는다고 믿으며, 이를 글로벌화의 탓으로 돌린 것이 그 반세계화의 시작이다.

세계화가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가 있다 [3]. 세계화가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가장 가난한 20%의 소득 점유율도 세계화로 인해 감소하는 반면, 가장 부유한 20%의 소득은 증가한다. 사실상의 소득 분배와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산층 소득의 뚝은 견고하며 무역 및 금융 세계화를 위해 유지된다. 국가 그룹 별로 구별할 때,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다. 고소득 국가의 경

우, 우리는 세계화가 중산층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 [3]. 이는 중산층의 몰락이나 경제적 불균형 등이 반세계화 현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단독으로 반세계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정치,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 연구 중 유럽에서는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로, Eurostat 지난 20년(1994-2016년)에 걸쳐 EU15를 구성하는 국가의 중산층의 '억제' 문제를 다룬 결과가 있다[4]. 세계화와 경제 순환과 관련된 힘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국가에 특정한 제도적 설정과 다양한 특징 사이의 상호 작용을 찾는 국가의 클러스터에 따른 공통적인 패턴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증가와 중산층의 쇠퇴를 예측하는 이론과 상충된다. 반대로, 그들은 개별 국가에 고유한 힘이 EU15 수준의 일반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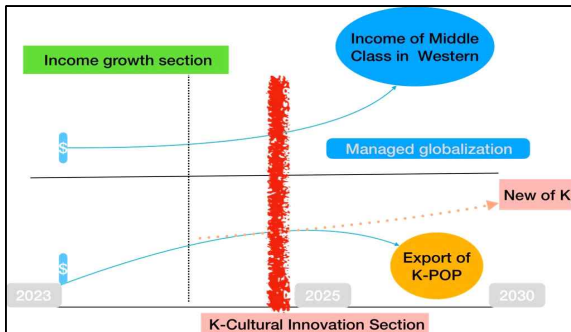


그림 1. 세계화의 조정으로 K-문화와 서구 중산층 관계모델
Figure 1. K-Culture & the Western Middle-class Relations Model under Managed Globalization

그림 1처럼, 반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지역간 갈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한,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의 조정으로 서구 중산층의 변화에 따른 K-문화의 혁신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과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화적 자아를 다시 인식하고자 하여, 반세계화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반세계화와 함께 중국의

K-문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반세계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원격 교육과 재택워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이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III. 세계화의 혁신과 통제

1. 세계로의 변동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 지식 및 노동의 교환이 증가하면서 세계가 더 많이 연결되는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역사 속에서도 세계화는 존재해 왔지만, 세계가 더 통합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제가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세계화의 거대한 웹의 일부이다. 그것의 범과 영향에 따라, 세계인은 다른 나라와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세계화가 붕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공육적 및 정치 관계 등 분야별로 세계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인은 전 세계에서 가져온 제품과 재료를 입고, 먹고, 살고 있으며, 반세계화 운동이 있더라도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 세계인은 맥도날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고, 남미 원두로 만든 스타벅스 커피와 미국 과일로 만든 주스를 마신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 생활의 일부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영국에서 최근 여행한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소득을 창출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인 소통은 작은 출발에서 시작되었지만, 위대한 결론을 얻었다. 예를 들어, 페이스 북과 SNS는 하버드 대학생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세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먼 거리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는 우편 시스템, 전신주, 전화, 스마트 폰과 같은 정보 전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단, 지역적 차이는 존재한다. 호주에서는 한국보다 소통이 더 원활하거나 빠르게 처리되지는 않는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 빨리 처

리되는 한국과 비교해서, 대담을 얻기까지 약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세계는 주로 빠르게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경제 활동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지역으로부터 이동하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소 및 신제품을 도입하는 주요 기업이 있는 혁신의 중심지 도시로, 상품 교환을 위한 활동이 많은 지역, 교통 허브,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가 있는 지역 등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의 속도는 반도시화로 인해 늦춰지고 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28.1억 명이 이동하면서, 1970년(8.4억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재창조된 세계가 나타났다. 국제 이주의 가장 큰 목적지는 30.9%(8,700만 명)의 유럽이며, 30.5%(8,600만 명)의 아시아, 20.9%(5,900만 명)의 북아메리카, 9%(2,500만 명)의 아프리카, 5.3%(1,500만 명)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그리고 3.3%(900만 명)의 오세아니아가 있다. 세계는 재창조된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2. 세계로의 이주속도와 변형

세계로의 이주속도와 변형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주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주는 어디서든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이주자는 대개 새로운 경제 활동, 산업,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주자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참여하고 사회와 문화적으로 통합되면, 이주는 국가와 지역의 변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주가 제한되고, 이주자들이 사회와 경제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면, 이주는 국가와 지역의 변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와 변형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이 있으며, 경제, 사회 및 정치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18세기와 19세기의 세계화 파동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 굶주림, 실업, 전쟁, 자연재해로 인해 원치 않는 여행을 시작했다. 수백만 유럽 공예가, 농부, 소상공업자, 노동자들은 끝없는 가능성을 찾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미국 대륙으로 향했다. 도착 후에는 고향에 풍성한 기회와 싼 가격의 토지를 청송하는 편지들이 쏟아졌고, 유럽 항구 도시들에서는 이주 행렬과 과잉 인구가 이어졌다. 이동성과 교통수단의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세계적 시대에 있어서 중요하다. 과학적 증거는, 기술적 기술을 가진 이민자 노동자들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이민자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집트와 그리스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거대한 도서관이 건립되어 많은 학자들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이주 속도가 늦어지면서 도서관의 지식은 사라지고 중세시대에 급속히 쇠퇴했다. 이와 같이 이주는 어떤 경우에는 이주자들과 이주 받는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사업을 시작하고,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 받는 나라의 경제를 부양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주자들이 떠나는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주자들이 장기간 이주하면서 떠나는 나라에서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빈집 문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주는 항상 이주하는 나라와 이주 받는 나라의 상황을 고려된다.

3. 인위적인 세계화의 반작용

인위적인 세계화의 반작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화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환경 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위적인 세계화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희생시키거나, 금융의 위기로 지역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세계화가 인간의 복지와 변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13년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은 세계 경제를 상호 연결하고 재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옛 실크로드의 교차로 역할을 한 Horgos는 지금 중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육로 항구"로 기능한다.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이미 정기적인 화물 열차가 운행 중이지만 배보다 비싼 열차 운송 비용이 아직 높은 상황이다. 과거의 실크로드는 각국 간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발전되어 릴레이 무역을 이룬 반면, 현재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공동체와 글로벌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 생존을 위해 요구된다[10].

또한 영국이 과거에 그려놓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오토만 제국의 붕괴 이후 중동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유럽 각국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도상에 경계를 그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독립 이후 지역에서는 영구적인 갈등의 근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협정은 유럽 강대국이 중동 지역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지도에 선을 긋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지배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해 독립 이후 중동 지역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간섭하면서 갈등이 계속되어 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4. 세계화의 허브이동

1) 아시아의 성장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시아 가격으로 구매한다. 중국은 이미 구매력을 기준으로 미국을 앞지르며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되었고, 아시아 전체는 전 세계 GDP의 절반에 해당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더 많이 무역을 하면 제품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11].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와 식품 생산국이자 소비국이 되었다. 더욱 효율적인 농업 기술과 인프라 확대로 아시아 국가들은 가뭄과 자연재해의 영향을 완화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지역적인 식품 및 에너지 안보 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계화된 현대 세계에서도 무역은 지역 국가들에게 크게 의존해 왔다. 2016년에 유럽은 전 세계 무역의 30%, 동아시아가 25%, 북미가 20%, 나머지 1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아시아로 역전되었다. 새로운 현실은 비서양국가 간의 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연합의 글로벌 무역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은 소프트파워로 더 표출되고 있다. 과거 19세기 유럽화와 20세기 미국화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의미 있는 국가적 정체성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생긴 국경, 정부,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침략,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SNS에서 달리화까지 자국 문화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서양 문물에 개인적인, 심리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응원하고, 할리우드 배우들의 영화를 즐기며 영어를 제 1, 2 언어로 사용했다. 그러나 개개인은 분노와 혼란속에 자신들 문화와 전통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며, 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서양과 자신들의 문화 사이의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들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며 자신들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새로운 아시아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9]. "아시아화"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 및 정치 권력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아시아 시스템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모든 나라들은 포용적인 성장과 상호 지원을 추구해야 한다. 첫째, 세계는 이민, 난민, 노동, 언어,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로 더욱 아시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둘째, 남아시아의 난민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으로 이주한 난민 수는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난민 수보다 적다. 터키에는 30만 명, 파키스탄에는 15만 명, 레바논과 이란 각각에는 10만 명의 난민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다. 셋째, 언어 이민 측면이다. 과거 유럽과 아시아는 중요한 교통 노선을 통해 연결되었으며, 다양한 언어 지역들(동로마 제국과 오토만 제국의 수도들)이 존재했다. 그 지역 언어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2000년대 초부터 이곳에 이주한 10만 명의 중국인들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 이들 이민자들은 싱가포르의 영어권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넷째, 사회학적 혁신이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싱가포르의 중국과 더욱 불편한 인종 갈등을 겪을 것이다.

2) 아시아의 융합

1990년대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0.1%였으나, 4.3%(2020)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외국인 이민자를 환영한 서양 사회와 유사하다. 국제결혼 비율도 1990년대 1%였지만, 14%(2014)로 증가하였다. 베트남, 중국 여성이 한국 남성들의 일반적인 외국 신부가 되었으며, 남-북한,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 아시아인들은 서양에 대한 열광을 가졌지만, 일반적으로 인도나 중국으로 여행하지 않았다. 아시아의 중산층은 뉴

육과 캘리포니아, 런던과 파리 같은 여행지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의 관광산업에서 혜택을 받았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중국의 춘제 같은 아시아의 휴일 시즌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중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의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은 연간 3500억 달러로 미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돈보다 3배나 많다.

3) 아시아인의 세계화 강요

동일한 아시아인이 다른 아시아인들에게 세계화를 강요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문화 간 갈등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국가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문화를 강요하면 그 국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문화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많은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제국으로 이주하면서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바, 마닐라, 태국, 베트남, 크메르 사회에 동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문제이다. 강요된 세계화는 일부 국가에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다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과거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은 유럽과 아시아를 모두 황폐화시켰다. 일본의 중국, 한국에 대한 강탈은 14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약 1억 명을 이주시켰으며 수십만 명의 중국인과 한국인을 노예로 만들었다. 셋째, 사회적 문제이다. 세계화를 강요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익 추구는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만 혜택을 주며, 다른 지역이나 계층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1947년에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가 이끄는 인도(힌두교)와 무하마드 알리 진나(Muhammad Ali Jinnah)가 이끄는 파키스탄(이슬람 교)으로 종교에 따라 각각 분리됐다. 약1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맞는 새롭게 탄생한 국가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약 100만 명이 사망했다. 다섯째, 지구 환경 문제이다.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자원 소모, 환경 오염,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강요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

게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용량 한계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가 스스로 전 세계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하기 때문이다.

IV. 실증 결과

1. 세계화의 조건

전제 1.(현재 상황) 아시아는 세계 공장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산업이 GDP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공장 자동화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 이전 세대에 비해 제조업 취업 기회는 줄었지만 아시아에는 여전히 1억 명 이상의 제조업 노동자가 있다.

전제 1.(조건) 세계화의 첫 번째 조건은 시차, 트렌드, 로봇 등에 의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IT 소프트웨어 작업은 인도와 미국 사이에서 24시간 근무주기를 이루고 있다. K-POP과 화장품의 인기로 인해 유럽인들이 아시아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영화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테마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 트렌드를 따르는 중국 여성들때문에, 유니리버가 2017년에 카머 코리아를 27억 달러에 인수하게 된 원인이다.

첫째, 문화적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 협력의 세계화, 자원 공유, 디지털 세계화, 세계화와 반세계화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세계화의 비전이 제시된다. 둘째, 세계와 연결되는 한 모든 것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자동화 시대가 도래했다. COVID-19 대응은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플랫폼 상품 판매로의 전환을 유발하면서 로봇과 AI에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셋째, 세계 일부 지역의 변화는 전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며 현지로 이민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주는 여행의 시작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번째로, 글로벌화의 갈등을 살펴보면, 주변국의 일본의 반도체관련 소재, 부품, 장비 수출금지외 더불어, 중국도 한국 화장품 수입 금지 및 COVID-19 팬데믹 규정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다섯 번째로, 한국 문화 수출은 2016년 이후 82%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한국 영화가

Netflix와 Amazon을 통해 보급되고 있다. Netflix와 Amazon(OTT 서비스)은 인도에서 넷플릭스가 여러 인도 원작 작품을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는 환경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조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자연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이는 오염과 환경 파괴를 증가시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파리 협정과 같은 기후 환경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세계화는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이끌었다. 세계가 점점 더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와 그 영향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2. 반세계화의 소프트웨어 경쟁

2017~2022년 동안 주요 수입국의 Globalization index [12], 소득추이(current prices)/Gini income inequality index[13] 와 한국의 K-culture(음반 및 영상물) 수출[14] 간의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반세계화가 확대되어도 소프트웨어가 유지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단, 수입국의 2021,2022년의 소득과 지니계수는 예측치이다.

표 1. 한국의 K-culture(음반 및 영상물) 수출[14]과 수입국의 Globalization index [12], 소득추이(income : current prices)/Gini income inequality index[13] Table 1. Korea's export of K-culture (record & video), globalization index, income trend/ Gini index of US.

Regression Statistics					
R	0.9077	R-Squared	0.8239	Adjusted R-Squared	0.5596
MSE	116,308,632.6249	S	10,784.6480	MAPE	56.9878
Durbin-Watson (DW)	1.9010	Log likelihood	-60.9331		
Akaike inf. criterion	21.6444	AICc	23,6444		
Schwarz criterion	21.5055	Hannan-Quinn criterion	21,0886		
PRESS	1.2944E+10	PRESS RMSE	46,447.8275	Predicted R-Squared	-8.8019
Exports of Korean records to the United States = 2,066,549.6167 - 27,306.4542 * US Global Index - 0.7433 * US income (us dollar) - 451,227.6831 * US Gini coefficient					

표 1.의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국의 음반 수출} = 2,066,549.6167 - 27,306.4542 * \text{미국의 Globalization index} - 0.7433 * \text{미국의 소득 (미국 달러)} - 451,227.6831 * \text{미국의 Gini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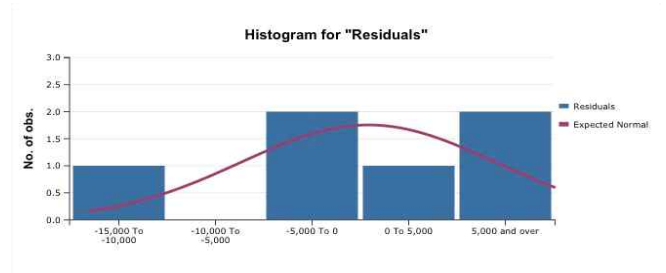


그림 2. 잔차 히스토그램(미국) Figure 2. Histogram for Residuals(US)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면 한국의 음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귀식에서 US income (us dollar)의 계수가 음수 (-0.743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2의 잔차가 약간 불균형에 불구하고, 수출 3위 국가인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감소해도, 한국의 음반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중산층의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한국의 음반이나 영상물과 같은 K-culture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중산층의 문화적 취향은 보통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된 K-culture 제품들이 미국 중산층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되기에 수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계속 오르면 한국의 음반이나 영상물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p-value값은 US Global Index vs. Exports of Korean records to the United States :(0.0172) US Gini coefficient vs. US Global Index: (0.0189), US Gini coefficient vs. Exports of Korean records to the United States: (0.0248)

Spearman 상관관계 분석: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Spearman 상관계수 등을 사용하여 수출과 중상층 소득 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위의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음반 및 영상물 수출과 미국의

Globalization index 및 Gini coefficient 간에는 각각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중간 소득층의 감소로 인해 소프트파워를 통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분석은 상위 k-culture 서비스의 수출량과 동일 국가별 상품 수출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중상층의 구매 행동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V. 결론

세계화는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모두가 혁신적인 미래를 선도하는 일원이 될 수 있다. 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계화가 다른 분야에서는 수출을 촉진시키지만, 문화 산업계층에서 소외와 지역적 특성의 손실(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산업에서 세계화를 추진할 때는 지역적 계층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반세계화에도 한류의 소프트파워 가치가 주요 수출국의 중상층에 대한 새로운 사용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K-문화 세계화 산업은 중상층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K-POP, K-공유 등을 개발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한류의 소프트파워 가치를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s

- [1] C. Guan, T. Rani, Z. Yueqiang, T. Ajaz, M. I. Haseki., "Impact of tourism industry,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on ecological footprints in G-10 countries" *Ekonomiska Istraživanja*, pp 1-17, 2022.
- [2] Y. Melnyk, L. Voloshchuk, T. Stepanova., "FORMATION OF INNOVATION-INVESTMENT INTEGRATION STRATEGY FOR INDUSTRY DEVELOPMENT UNDER GLOBALIZATION CONDITIONS" *Baltic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4, Iss 5, pp 217-227, 2018.
- [3] Pleninger, Reginade., Haan, JakobSturm., Jan Egbert., "The 'Forgotten' middle clas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globalisation." *World Economy*; Vol. 45 Issue 1, p76-110, 35p, Jan 2022.
- [4] Salido, Olga., Carabaña, Julio., "An increasingly squeezed middle class? Changing income distributions and inequality in the EU15 through the last economic cycl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 27 Issue 3, p343-356. 14p, 2019.
- [5] D.S. Seo, GDP Growth Due to Strengthening the Mobility Platform and Cooperation with the Czech Republic, *APJCRI*, Vol 8, No.10, pp 169-179, 2022, doi:http://dx.doi.org/10.47116/apjcri.2022.10.15
- [6] J.H. Shim, D.S. Seo, "Economic Cooperation Plan in the Natural Resourc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 Focusing on historical and genetic affinity", (*APJB*) *Asia 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2, no.3 pp.117-136, 2021, doi:https://doi.org/10.32599/apjb.12.3.202109.117
- [7] D.S. Seo, B. M. Seo, "Advancement plan into economic soft power for multifaceted trade in Morocco, North Africa",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5 pp.103-110. 2022.
- [8] D.S. Seo, H. W. Yim, "A study on cultural understanding and regional cooperation in Yemen and Ethiopia",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3 pp.147-154, 2021.
- [9] Issuu, *Global is Asian*, Singapore, SG Jan 2023, retrieved from https://issuu.com/nuskyschool/docs/global-is-asian_issue6
- [10] S&P global,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s this the World's Largest Venture Capital Project?*, Jan2018, retrieved from <https://www.spglobal.com/en/research-insights/articles/chinas-belt-and-road-initiative-is-this-the-worlds-largest-venture-capital-project>.
- [11] World Bank, *Purchasing force standard GDP*, Jan 2023, retrieved fr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 [12] The Swiss Institute of Technology, *Economic globalization index (0-100) in Zurich*, Jan 2023.
- [13]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March 2023,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 [14] Korean customs service. Feb 2023 retrieved from <https://www.customs.go.kr/english/main.do>.